

# 과도기의 서러운 세대

**6 손봉호(대표주간)**

나는 올해 주민등록 나이로 74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75살이다. 내가 태어날 때는 신생아 때 부분이 1년 이내에 죽었기 때문에 한 돌이 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다. 돌잔치를 성대히 하는 풍속이 생긴 것은 삶의 칠향을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남은 우리는 일본 강점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허뿌리를 게 먹었다. 6.25 전쟁 때는 많이 죽고 다쳤다.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는 것을 행운으로 일었고, 외국인이 있다 버린 구호물자로 추위를 견뎠다. 독재 치하에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하여 문자적으로 피와 땀을 흘렸고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 온갖 친대와 수모를 다 감수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도기 세대의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한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효도 못 받고 어른 대접 못 받는 첫 세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이 끔스러운 첫 세대, 어른들 말을 경청한 마지막 세대, 자신들의 말이 콧방귀로 들리는 첫 세가 되었다. 가족을 위하여, 자식과 나라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무시 받는 서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자립하러니 늙었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자식도 국가도 돌봐주지 않으니 자살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다. 65세 이상의 노인 10만 명당 81.4명이 자살해서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1명의 거의 5배나 된다. 부양할 자식이 없고 국가가 외면하고, 자식은 자기 자식 사교우버 지출로 어려움이 없고, 노인들은 배와 신창 사이에 빠져버렸다. 오늘날의 한국인은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같은 처지에 있다.



과도기 노인들에겐 관심이 별로 없다. 돈이 없으니 현금도 많이 못 하고, 힘이 없으니 봉사도 못하고, 폐쇄 묵은 생각에 발언권도 없고, 정중하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례서는 안 된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듯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다. 부자집 아이들은 비싼 유기농 식품으로 공짜 점심을 먹이면서 힘없는 노인들은 자살하는 말든 방치하는 것이 정의를 수 없다. 모든 노인을 다 우대할 필요도 없다. 돈 있는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도 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노인들만 더 도우면 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없애고 일반처럼 노인들로 통행료를 받도록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효율성도 좋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다. 우리도 젊을 때는 그랬는데 당해보니 착각이더라. 노후대책이란 노인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해야 한다.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 노인 보호 정책, 노인 존중 문화가 중요한 노후대책이다. 당신들이 늙었을 때 지금의 노인 신세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후대집안 사람은 후대집받기에 삼상이다.

노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똥 놓아라, 대추 놓아라." 지시할 시간은 지나갔다. 어차피 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들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반세기가 넘도록 시행착오를 거쳐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그대로 사장에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새 세대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해 보니 좋더라, 저렇게 해 보니 나쁘더라."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공연히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며 철도공사 직자만 늘이지 말고 노안정에 모여 앉아 바둑이나 둘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길가의 쓰레기도 줍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 남이 보는 데서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젊은 것들, 담배꽂초 버리는 젊은 것들, 담배꽂지를 꾸짖고 나무라야 한다. 혼자 하면 못된 놈들에게 폭행당할 수도 있으므로 몇 노인이 무리를 지어 잔소리 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젊은 세대에 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자살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생명경시 풍조를 강화해서 사회를 돕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곱게 늙자.



**손봉호** 부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연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연스태 로망지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으며 현직의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